

# 호남의 아들들, 태극마크 빛낸다



임창용

양현종

나지완

나성범

이태양

강정호



인천아시아게임 D-43

광주·전남 얼굴들

### 야구 대표팀

#### 양현종·나지완·강정호·임창용·나성범·이태양, 야구 2연패 도전

지역출신의 프로야구 별들이 '아시아 최강'을 노리며 9월을 기다리고 있다.

야구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6연승 행진으로 우리나라 남자 구기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의 쾌거를 이뤄냈던 종목이다. 아시안게임에서도 3개의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야구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 아마추어 선수들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은 1998년 방콕대회에서 박찬호를 앞세워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에서 2연패에 성공했지만 2006년 도하 대회에서는 졸전 속에 동메달에 그치기도 하며 '도하 참사'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은 한국의 2연패 도전이다.

안방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지역출신의 선수는 양현종·나지완(이상 KIA), 강정호(넥센), 임창용(삼성), 나성범(NC), 이태양(한화) 등 모두 6명이다.

KIA의 에이스와 4번 타자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에이스 양현종은 김광현(SK)과 함께 대표팀의 원투펀치로 금메달을 겨냥한다. 양현종이 노리는 두 번째 금메달이기도 하다. 양현종은 광주우 대회에서 '복병' 중국과의 준결승전 선발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 3사사구 5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2008년 프로에 뛰어든 4번 타자 나지완에게는 첫 태극마크다. 나지완은 타율 0.340, 홈런 17, 타점 70 등을 기록하며 자신의 최고 시즌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2009년 프로야구 역사

를 바꾼 결정적 한방을 터뜨렸던 나지완은 올 시즌 활약을 이어 아시안게임의 스타를 노린다.

'월드 스타'에 도전하는 광주일고 출신의 강정호의 한방도 기대된다. 공·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격수로 성장한 강정호는 올 시즌 31개의 공을 외야 밖으로 견어올리면서 프로야구 유격수 최다 홈런기록을 갈아치웠다. 광주우 대회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부르는 홈런 두 방을 터뜨리기도 했던 강정호다. 올 시즌이 끝나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스카우트들의 눈길이 쏠려진 인천에 쏠릴 전망이다.

진흥고를 대표하는 투수 임창용에게는 세 번째 금메달 도전이다. 1998·2002년 대표팀에 승선해 두 개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임창용은 국내 복귀 첫 해 대표팀 마무리의 임무를 맡게 됐다. 올 시즌 5.01의 평균자책점으로 7번의 불륜 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지만 경험이 임창용의 최대 무기다.

2014시즌 프로야구의 별로 떠오른 신예 선수들의 패기도 준비됐다. 데뷔 두 번째 해 공격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NC의 중심타자 나성범(진흥고 출신)과 한화 마운드에 햇살이 된 이태양(순천 효천고)이 그 주인공이다. 두 선수는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한 것은 물론 태극마크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파워로 금메달을 두드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